

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관실 항공보안과	책임자	과 장 임월시 (044-201-4232)
		담당자	사무관 조동현 (044-201-4238)
보도일시	2022년 7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26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승객 “빈손여행” 확대

- 전국 6개 지방공항 출발 짐배송 서비스... 모든 국적항공사 참여 -

- ▶(사례1) 비행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수하물을 찾는 일이다.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찾을 수도 없고, 수많은 승객들 틈 속에서 내 짐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보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.
- ▶(사례2) 친구들과 여름휴가로 제주여행을 계획 중인 A씨는 고민에 빠졌다. 공항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 직접 수하물 짐을 찾는 것부터, 짐을 옮기기 위한 렌트카 비용 및 이용시간 등을 고민하다 보니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한국공항공사(사장 윤형중)는 오는 7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 ‘짐배송 서비스’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·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‘짐배송 서비스’ 시범운영 결과,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(91%),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한다.
 -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(총 6개社)만 참여했지만,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.

-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·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면서도, 출발공항은 김포 한곳에서 청주·양양·김해·대구·광주공항으로 적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별 거점공항까지 확대한다.
- 시범운영 중, 제주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서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는 여객의 수하물 배송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 기존, 제주공항-호텔 간 짐배송서비스와 함께 호텔-제주공항 간 서비스도 추가되어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“빈손여행”이 구현된다.
- 이에 따라, 호텔 등 숙소에서 퇴실하고 짐은 미리 공항으로 부칠 수 있어 남은 시간도 간편하게 제주여행 후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 김현정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객편의 향상 및 빈손여행 정책 방향,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도착장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규제는 완화하고 여객 편의성은 높이는 한편, 항공보안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관실 항공보안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4232)
		담당자	사무관	조동현 (044-201-4238)
		담당자	주무관	권영민 (044-201-4236)
담당 부서	한국항공공사 랜드사이드운영부	책임자	부 장	이봉희 (02-2660-2302)
		담당자	담당자	전세움 (02-2660-2306)



□ **이용방법**

- (배송업체) (주)짐캐리(☎1544-8215)
- (서비스 신청) 출발 전일 24시까지
- (예약방법) 누리집(www.zimcarry.net/airpass/) 또는 검색포털에서 “짐캐리 에어패스” 검색) * 출발 항공편, 운항정도 및 배송지 등 입력
- (이용요금) 일반 캐리어 1.5만원, 골프백·자전거 등 대형 수하물 2만원
* 짐배송서비스 이용객은 숙소에서 공항서비스 이용 시 20% 할인
- (위탁방법)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짐(수하물) 사진을 찍고(정면·측면·수하물 꼬리표 등) 짐배송업체 (짐캐리) 모바일 웹에 업로드 후,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위탁

□ **처리절차**

